

교회 목표

신앙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 1:2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4 총현교회

THE WEEKLY CHŒ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이태복

달고 오묘한 그 말씀(금요일전) - 천국 복음

제1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제2장. 장대에 입말 천국

제3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제4장. 천국의 비밀

제5장. 천국의 생명

제6장. 천국의 의

제7장 천국에서 요구되는 것 (1)

"내가 만일 네 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롬 10:9). "거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행 16: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일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 들어갈 수 있는 말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또한 예수를 주라고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결정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대면하고 있는 것이다. 장차 오실 그 나라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장래에 모든 인간의 재판장으로 오실 그분이 이미 인류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결정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4:17a). 여기에서 회개하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은 우리의 삶과 방향을 완전히 돌리서 천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고 천국을 볼려는 의미이다. 회개의 핵심은 현재의 삶의 질과 또 장래의 운명을 확정해 주는 그런 결정이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갈릴리를 떠나게 되실 때 즈음에 70인의 제자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온 지방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다. "거기 있는 백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하라"(눅 10:9). 이들은 갈릴리 지방의 평범한 어부였지만 천국을 전파해 주는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을 만나 천국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환영하며 천국을 받아들이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문을 닫고 천국의 복음을 배척하였을 것이다(눅 10:10-12 참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천국의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천국의 그 의로움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장차 입할 그 나라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내재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쉬운 대답을 준다.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이 선택의 의지를 가지고 응답하는 것이다. 이 요구를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요구하는 의를 우리를 안에서 찾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에게 천국이 요구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친히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정한 의의 수준에 도달할 때에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한 가지만을 요구하신다. 곧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우리의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을 받게 되며, 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모든 것들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지하고 굳센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하신다.

"길 가실 때에 흠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눅 9:57).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좇을 결심을 하고 결정을 내린 한 사람을 볼 수 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고"(눅 9:58). 주님은 그 사람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되돌고 계신다. 집도 없고 설 자리도 없는 예수님을 쫓아 나설 용기가 정말 있는 거냐고 물으신다. 우리들은 이러한 것을 참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굳건한 결심을 내릴 것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아라 하신지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려함은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직책에 하려함은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눅 9:59-62). 하나님의 나라는 즉각적인 결정을 요구한다. 거기에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또는 뒤를 돌아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 자신의 삶이나 환경, 책임이나 우선순위를 계획하면서 서서히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뒤에 남겨둔 것들을 볼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할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실한 결정, 돌이킬 수 없는 결정, 뒤를 돌아보지 않는, 깨끗이 청산된 결정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결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전보다 더 겸손히 앞드려야 합니다"

금주 화요일(5일), 교역자·장로·안수집사·권사 기도회

금주 화요일(5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갈릴리 홀에서 교역자·장로·안수집사·권사 기도회가 열린다. 해마다 우리는 일 년에 두 차례, 교역자·장로·안수집사·권사 기도회로 모여 교회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매년 기도회가 열릴 때마다 우리의 심정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며, 또한 진실한 겸손의 마음이다. 근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역에 복을 주심을 느끼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성도들이 단기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고, 복음을 더 온전케 깨닫고 확신하고 있으며, 많은 새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정착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전보다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앞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조금만 일이 잘 돌아가면 곧세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쁜 버릇이 있다. 마치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앞으로 얼마든지 일이 잘 돌아갈 것처럼 믿어버리는 버릇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고 또 내 마음에 깊은 감사의 심정을 가지도록 하자.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헤아려보고도 진실한 겸손의 심정을 가지도록 하자. 이런 준비를 갖춘 후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라고 말씀드리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자(시 27:8).



10월 행사

5일 교역자·장로·안수집사·권사 기도회

6일 전도위원회 헌신예배
(수요2부예배)

장기(영회)

22일 안수집사 주재발표회 (금요일전)

24일 제5차 학습세례식

27일 장로·집사·권사 임직예배(수요2부예배)

29일 제3차 청지기(문권)교집회

31일 종교개혁주일

VOICE OF GOD

"⁽¹⁾Now it came about after the death of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that the LORD spoke to Joshua the son of Nun, Moses' servant, saying," ⁽²⁾Moses My servant is dead; now therefore arise, cross this Jordan, you and all this people, to the land which I am giving to them, to the sons of Israel." ⁽³⁾Every place on which the sole of your foot treads, I have given it to you, just as I spoke to Moses. ... " ⁽⁴⁾No man will [be able to] stand before you all the days of your life. Just as I have been with Moses, I will be with you; I will not fail you or forsake you.

(Joshua 1:1-7)

Joshua had the awesome experience of hearing the Creator's voice speaking directly to him(v. 1). However, when God's voice came to him, His first words were not good news. God told Joshua, "Moses My servant is dead"(v. 2). This sad news made Joshua's heart sink, for Moses was the world's greatest leader. A thousand or even a million men's deaths could not amount to the loss of one Moses. He was the one who saw the burning bush. He was the one who came to Egypt with only a stick in his hand to conquer the world's conqueror. He was the one who led Israel out of Egypt. He was the one who brought forth water from a rock, and fed the multitude with bread from heaven. He was the one that led more than two million people for 40 years, day and night, toward God's promise. He was Israel's physical, spiritual, and future life. They relied on him for everything. Now, the Creator's voice comes to Joshua, Moses' servant, and tells him that Moses is dead. Israel faces a very depressing situation.

All of Israel mourned over the death of their great leader, but the Creator's voice also told Joshua, "now therefore arise, cross this Jordan, you and all this people"(v. 2). God's voice always brings hope in the midst of despair. Although Joshua was nothing compared to Moses, a slave with no education, yet God chose him, not Moses, to cross the Jordan with His people. Moses dreamed of crossing the Jordan with Israel, and even prayed for God to allow him to go, but God refused his request because of his disobedience at Meribah. He told him, "Enough! Speak to Me no more of this matter. Go up to the top of Pisgah and lift up your eyes to the west and north and south and east, and see it with your eyes, for you shall not cross over this Jordan"(Deut. 3:26-27). Since Moses was not able to lead Israel, Israel considered going back to Egypt, but God's merciful voice came down to Joshua commanding him to lead Israel across the river. That is God's grace. He always gives encouragement and help to His children, "Behold, the Lord God helps me; who is he who condemns me? Behold, they will all wear out like a garment; the moth will eat them"(Isa. 50:9). Situations change, but the Creator God is unchanging, and His years are unending(see Heb. 1:12). He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yes and forever(see Heb. 13:8). Joshua was a child of God who served Him with all his heart. He did not have a boat to cross the Jordan with, nor did his people know how to swim. The river was then at flood stage and difficult to cross. Its distant width was intimidating, but the Creator's voice gives great happiness. Whoever relies on Him finds remarkable support.

God's voice told Joshua to cross the Jordan. "to the land which I am giving to them, to the sons of Israel. Every place on which the sole of your foot treads, I have given it to you, just as I spoke to Moses"(v. 2-3). When God's voice says to go, you can be sure that He will take care of you. Many strong opponents occupied the land on the other side of the Jordan, but God promised to give this land to Israel. It was a promise He made even to their ancestors,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s will not pass away"(Mt. 24:35). Do you believe it? All Israel had to do was go because God already promised to give them this land. Psalm 102 says, "Of old You founded the earth, and the

heavens are the work of Your hands. Even they will perish but You endure; and all of them will wear out like a garment; like clothing You will change them and they will be changed"(vv. 25-26). God told Israel to go and cross the river, so that they could receive the Promised Land. Jesus' promise to us is similar,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He who has believed and has been baptized shall be saved; but he who has disbelieved shall be condemned"(Mk. 16:15-16). God's servants carry on His salvation plan. Are you listening for His voice? If He asks you to go to Mongolia, Romania, or Sri Lanka, are you willing? He is ready and souls are waiting for you. Like Israel, wherever you go, He will be with you, and you will conquer the enemy.

God's voice told Joshua, "No man will be able to stand before you all the days of your life. Just as I have been with Moses, I will be with you; I will not fail you or forsake you"(v. 5). What a promise! When you hear God's voice, you need not to have any worries. Jesus said,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Mt. 28:18b-20). This is the Great Commission! Are you hearing God's voice?

God's voice also commanded Joshua, "Be strong and courageous, for you shall give this people possession of the land which I swore to their fathers to give them. Only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 careful to do according to all the law which Moses My servant commanded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so that you may have success wherever you go"(vv. 6-7). Even though Moses died, God is alive! He will lead you wherever you need to go, and He will be with you. every step of the way, so that you never have to worry. All you have to do is move by your faith,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worlds were prepared by the word of God; so that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things which are visible"(Heb. 11:3). Hebrews 11:6 says,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for he who comes to God must believe that He is and that He is a rewarder of those who seek Him." Do you believe it? I hope you do, "for whatever is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our faith"(1 Jn. 5:4). Listen my friend, "I solemnly charge you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Christ Jesus, who is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nd by His appearing and His kingdom; preach the word, be ready in season and out of season; reprove, rebuke, exhort, with great patience and instruction"(2 Tim. 4:1-2).

My dear friends, we have a tremendous God who wants to talk and walk with us. Let us open our hearts to hear His voice, so that we may follow Him. Let us be His children. You may have lost one or both of your parents, even a spouse, but remember that the Creator God is with you. If you have faith, if you truly believe, then there is no need for depression or worry. You can be strong and courageous when you take comfort and find encouragement in the Lord your God, for He is with you wherever you go. Please listen to God's voice. 

다음을 주일 설교

하나님의 음성

¹ "여호와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논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²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하여 나에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³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

⁵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 (수 1:1-7)



김성복 목사

여호수아는 매우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1절). 그러나 여호수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첫 말씀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2절a).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는 낙심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잃은 것은 천 명 또는 백만 명의 사람들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손실이었습니 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맨 손에 지팡이 하나만 들고서 바로 왕을 이기려고 애급에 당당히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애급에서 이끌어난 사람입니다.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기 했던 사람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사람도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백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육신적 생명이요, 영적 생명이요, 미래의 살아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든 모세를 의지하였습니 다. 그런데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들립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나에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2절b). 우리가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사실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지도도 없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모세를 택하지 않았습니 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세가 브리바에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도 죽으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들 들어 동서 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신 3:26-27).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애급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운 음성으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항상 격려하며 도와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웃고 같이 해여지며 함께 멸하리라"(사 50:9). 우리의 형편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그 연수가 끝이 없습니 다(히 1:12 참조).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히 13:8 참조). 여호수아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옮길 수 있는 배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영할 줄도 몰랐습니 다. 더군다나 요단 강물이 범람하고 있어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강이 넓어서 쳐다만 봐도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놀라운 도움을 얻습니다.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다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합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수 1:2b,3).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가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을 돌보하실 것입니다. 물론 요단강 건너편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는 현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이미 그 땅을 약속하셨습니 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 이 말씀을 믿으십니

까?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2편은 말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시 바나이다 천지는 없어지리나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웃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리니와"(25-26절 참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하셨습니다. 요단 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도 이와 비슷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마 16:15-16).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 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골, 루마니아, 스리랑카로 가라 하시면,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며 수많은 영혼들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함께 하시 것이며, 그 결과 여러분은 원수들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너와 평생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5절).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이것이 자상 대령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여호수아에게 또 명령합니다. "너를 능히 당하게 하라 당하게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저에게로 하시라"(6-7절).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며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결음씩

그러므로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한결음씩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 11:3).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와 계신 것과 또한 그의 이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들의 믿음이니라"(요일 5:4).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는 믿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할렘스 법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1-2).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와 동행하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도록 합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가운데 한 분이나 또 두 분 모두를 잃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참으로 믿는다면,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와 힘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강해질 것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그리스도는 승천하시었다 (행 1:9-11)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9절). 놀라운 사건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듣는 축복과 기쁨을 누렸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기쁨은 사라져 버렸다. 그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그들에게 놀라운 메시지가 전해진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11절b). 추석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조상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며, 서로 돌리앉아서 조상의 행적을 기린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간구하며 할까? 그리스도의 승천이다. 하늘에 올라가시며 날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이다. 오직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자랑해야 한다.

이 땅에서 그의 사역이 끝이 났다 -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시었고 탄생하시던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행하셨다. 주님의 사역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사역이었다(행 10:38). 주님의 고백을 들어보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자니라"(요 17:4). 주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따라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셨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주님을 보며 하나님을 팔람께 하는 죄인이라고 비난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드릴 수 있었다.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 보라. 인간의 계산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하셨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요 19:30b)라고 선언하셨다.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해 주셨던 것이다. 이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라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요 9:4). 만일 우리가 여전히 자식들을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훗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자. 영화와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사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자(사 9:6-7).

천국에서 중보자로서 일하신다 -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셨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후 2:5).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앞에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히 9:24).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인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름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의 약속을 얻게 하라 하시니라"(히 9:15). 또한 주님은 항상 살사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롬 8:26-27).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불지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눅 24:49).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도록 하라(요 15:26, 행 1:4-5).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요 14:16).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신다 -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처소를 아름답게 예비 하라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히 11:10,16). 그 성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아름다움이다(고전 2:9-10).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모든 점에서 아름답고 완전한 곳이다(계 21:1-2,23:27, 22:5).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간직히 가리라고 계신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이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며 복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자. 그리스도를 간중하는 삶을 살자.

장로칼럼

자원봉사로 청결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신상수
(장로, 자원봉사부 부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 총천교회의 5대 목표 중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봉사위원회에서 처음 봉사를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일이다. 처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그런데 마침 그 해에 큰 비로 전국에 물해가 닳고 나는 교회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해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때 본 수해 현장의 참혹함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철로는 엇가치처럼 휘어져 있었고, 농부에게는 목숨이나 다름없는 논지가 개천의 범람으로 물에 잠겨 있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지만 어떻게 해서든 쓸만한 것을 건져보려고 열심히 물을 퍼내고 침수되었던 가재도구들을 담고 달리는 수재민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다. 고당당하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웃 사랑'의 참 뜻을 배울 수 있었다.

어느 지역에 가보니 어디로부터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이는 흩터미 위로 십자가만 겨우 나와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떻게 된 것일까와 사정을 물으니 지역 사람들은 교회가 흩터미 아래 깔려 있다고 말해 주었다. 우리는 이 안타까운 사정을 우리 교회에 알렸고 교회는 구호금과 구호품을 흔쾌히 공급해 주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새로 건축했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은혜가 놀라기만 하다. 구호물품을 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가 위로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십자어는 주님들까지도 우리에게 진심된 감사를 표했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이 주님의 도우의 손길을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로 흘릴 때, 우리들은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열매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후 2:14).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정성, 물질과 사랑을 바쳐 봉사하려는 많은 교우들이 주님은 언제나 이들을 아낌없이 사용하시리라.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길로 달려가는 교회를 사랑의 헌신과 봉사로써 섬기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권사회에서는 매주 갈릴리홀과 배다나홀의 의자 시트를 청결하게 청소하고 있으며, 무디아 전도회에서는 본당 의자시트를 청소하고 있다. 예배 위원회 소속 봉사자들은 주일 예배를 위해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주보와 주간순례를 정리하고, 본당 1,2,3층을 정리하고, 벽에 달린 시계의 시간을 확인하고, 구석진 곳까지 살피면서 청결하게 청소한다. 특별히 지난해 7월부터는 온 교구와 부서가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는 바람에 이제는 청소도 구구 모자랄 정도이다. 각 교구에서는 교회의 환대에 꽃과 나무를 심어 저마다 예쁜 화단으로 정성껏 꾸리고 있다. 이처럼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아름답게 단장되고 있다.

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우리의 몸과 가진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거둬다가 하시기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 거룩한 봉사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하다. 총천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회를 되풀이해 바란다.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모든 것을 정성껏 바치려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직도 교회의 구석구석은 자원봉사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바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님께 바쳐 청결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리라. 이처럼 거룩하고 즐거운 봉사에 모두 함께 참여하도록 하자. '내 속해 주신 모든 것과 정성다하니 나의 온갖 인생십사 주를 위한 것일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라'(찬송가 354장).

도마와 같았던 저를...

할렘루아! 준비하시는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국땅의 이교도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지체들을 준비하신 주님! 선교에는 사랑, 헌신,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것들이 선행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단기선교의 결과에 부정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제대로 훈련받을 수 없는 개인적인 형편들, 짧은 준비기간, 연세 많으신 권사님과 집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팀 구성, 다른 문화권, 특히 언어의 준비부족 등 많은 기간에 복음의 씨앗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파락파락하게 심을 수 있을까? 심지어 몇 년 전까지도 주님의 계획 하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한참 후에 알 수 있었습니다. 등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몇몇 분들이 단기선교에 관한 권유와 말씀들을 주셨지만 저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단기선교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선교지에서 저의 인간적인 판단은 참으로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뜻 가운데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오직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인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시고 갈급한 영혼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신 후에 저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방법이 있어도 상황에 맞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본격적인 전도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비밀경찰에 적발되어 행동의 체계를 받았습니.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한참 후에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전히 믿음과 성령에 의존하고 저희들의 의지와 계획을 완전히 배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믿음과 기도로써 성령의 의지하여 믿음을 대하고 지혜롭게 전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연히 느낄 수 있어서 저희들이 현진인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 준비가 부족한 저희들이었지만 어이없히, 정수년들, 젊은이들, 중장년층,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갈급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영접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 이러한 놀라운 결과로 인해 비밀경찰들에게 또 한번 적발되기도 하였습니.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과 팀원들의 간절함 기도로 또 한번의 위기를 담담함과 지혜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선교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만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첫 번째 조건임을 알았습니다. 단기선교의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단기선교를 가고자 하는 소망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 은혜의 제법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정슬함(집사, 2교구)

주님의 일하심

우리 팀은 나름대로의 준비와 계획을 갖고 선교를 떠났다. 하지만 도착하는 순간부터 상황은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어갔다. 갑작스럽게 바뀐 통역자, 계획과 다른 숙소, 특하나 예상치 못했던 만남들로 우리의 선교사역은 진행됐다. 그렇게 사역기간 중 거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낯선 사람들과 낯선 환경 가운데 세워졌고, 우리는 그곳에서 그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었다. 크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개개인의 모든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는 걸,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서 느꼈다. 짧은 시간동안 낯선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것이지만, 이것은 결코 그 때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우리가 속속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계획하고 진행해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상황과 순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걸 기억하며 참된 말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선교지에서 우리 팀은 팀장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가 되어 나아갔다. 그러면서 찬양담당, 의료담당, 특수사역담당, 서기, 회계 등등 각자의 역할이 필요할 때 그 자리를 성실히 지키고 있었다. 참으로 팀원들 모두가 하나하나의 지체로서 성신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름다운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속에 있었고, 교회 안의 각각의 지체들은 그 속에서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었다. 또한 주님은 그 교회를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두음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 것이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기에 는 실수와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주님이 보내 아려 있다는 평안함과, 주님의 힘을 입고 세상에 서 있으므로 가질 수 있는 담대함, 또한 함께있는 형제 자매들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체했었다.

또한 그 땅의 이슬람 세력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그 주님을 머리로 한 성심한 교회들 아래 있는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땅 대부분을 문화로 또한 우상으로 이슬람 세력이 잡고 있는 것이 보이지만, 모두가 거짓으로 짜여진 것인 만큼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다. 그 땅의 젊은이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는 차원을 넘어 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열심은 오래지 않아 그 땅을 복음의 땅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다. 그들보다 조금 더 빨리 주님의 자녀로서 서 있는 우리들은 그 땅을 위해 기도와 실질적인 행동으로 주님의 역사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권 에스도(청년1부 교사)

나의 부족한 입술

선교지로 출발하기 3일전, "우리 선교지가 바뀌었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한숨만 나왔다. 열심히는 아니었지만 한 달 가량 선교를 하기 위해 준비해 왔던 것들이 무산되어 어찌했기 때문이다.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팀원들은 3일 동안 있는 정보 없는 정보를 모아가며 바뀐 선교지로 출발했다. 그렇게 내 생애 첫 번째 단기선교가 시작 된 것이다. 선교지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무것도 준비해 가지 않으니 하나님이 다 하셔야 한다고 속으로 기도했다.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 현진인 목사님을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현지에 도착해 겨우 숙소를 정하고 둘째 날을 맞이하였다.

우리는 주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시내로 나왔다. 그냥 지나가서 어둡다는 팀장님의 말씀에 우리는 잠시 전도지반 나루를 생각으로 차서서, 3차경 조를 이루어 30분 정도 전도지를 주었다. "이것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 대답했지만 현진인들은 미소로 답해주었다.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저녁 돌아와 보니 삼 시 대로 보기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두구구로 보았더니 전도지자를 나누어 주던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해서 모시고 왔다는 것이었다. 뜻밖의 일이었다. 임대일 전도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전도지자 나눠주고 가려고 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영혼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 돌리셨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은 한 동네에서 사역을 하였다. 그곳에서 현진인들과 출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공경해 하는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해변가 마을에도 갔는데 다리를 사이에 두고 이편은 카톨릭, 저편은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 마을에는 큰 성당이 있었다. 하지만 눈을 찢고 찾아보아도 교회는 볼 수가 없었다. 개신교를 믿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다는 사실에 정말로 마음이 아졌다.

그 후로는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이 사는 동네에서 선교하였다. 그 곳에서 신부가 되었다는 청년, 술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야자열매를 따주시길 하여서,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아주머니, 우리를 찾아다니며 길한말을 해준 꼬마아이가 등 많은 사람들을 낳고 나의 기억에 고스란히 남기 되었다. 이번 선교가 첫 선교이었던 기 대도 컸지만 아쉬움도 컸다. 갑자기 바뀐 나라 때문에 언어가 부족하고 사람을 무 서위에 먼저 다가가서 못했든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느릴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나의 부족한 입술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할만하다. 이번 선교를 거울삼아 다음에는 더욱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 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박효선(대학부)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10월 4일(월)~10월 9일(토)	직립 4	최상기	10월 4일(월)~10월 14일(목)	11교구 7지역	권인술
10월 4일(월)~10월 12일(화)	7교구 4지역	정성남	10월 5일(화)~10월 13일(수)	16교구 3지역	이상범
10월 4일(월)~10월 13일(수)	7교구 2지역	최대환	10월 5일(화)~10월 14일(목)	9교구 7지역	오재일
10월 4일(월)~10월 13일(수)	12교구 2지역	조순주			

▶ 지난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9월 23일(목)~10월 1일(금)	청년부 7	강병형	9월 24일(금)~10월 2일(토)	5교구 8지역	양기수
9월 24일(금)~10월 1일(금)	2교구 7지역	박종규	9월 24일(금)~10월 1일(금)	청년부 8	이재인
9월 24일(금)~10월 2일(토)	5교구 1지역	이진은			

나의 선교가 아닌 주님의 선교

이번 단기선교에는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이 있었다. 지난 선교와는 다르게 많은 전도를 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충족시키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인지 다 나은 뒤로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선교가 영혼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보다 나의 기쁨과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어서 일까? 그것은 제한된 여건 속에서 마음껏 전하지 못했다는 부족함이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예수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하는 나의 마음 이면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정한 것대로 나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있었음을 발견케 하였다.

이를 통해 나는 선교가 어떤 수 개념의 충족에 따른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한 전적인 헌신만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조용히 그분께서 먼저 행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 수 있으며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여건과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여건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감사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사실임을 확인하고 놀랐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예수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다.

아울러 왜 우리가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을 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었던 선교로 기억에 남는다. 주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전승기(청년2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불러보고 생각만 해도 언제나 포근한 아버지
벌레 같은 나, 양자 삼키위해 천 아예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그 사랑 비길 데 없애라.

사랑과 절망과 절망이 물려와도 늘 옆에 계시는
위로의 아버지 때문에 두려움 없다네.

슬픔과 낙심이 있을 때마다 나 무릎 꿇고 애쓰고 기도할 때
은은한 음성으로 다가와 온유한 마음 주시네.

우리의 거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
완전한 천국 이루어 가시는 위에 계신
평화의 아버지!

나 받은 사랑 너무 커져 밧고 빛난 천국 얻기 위해
심장까지 복을 위해 이 몸 아버지 위해 희생하리.
이것이 나의 본분아네.

조종민(인수복지 7교구)

소년부 교사를 하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지만

소년부 교사를 한지 거의 2년이 다 되었다. 오래도록 소년부에서 계신 분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에게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게 한 소중한 시간들이 아닐 수 없다. 아직까지 교사의 참된 모습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나에게 그나마 2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비빌 수 없는 시간임에 틀림없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내가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교사의 직분을 가진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는 것 같다. 작년의 처음으로 교사로서 봉사를 시작했는데, 아무런 각오와 사명감 없이 시작했던 티라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매주일 아침 10시까지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지각하기 일쑤였고, 아이들과의 만남은 나에게 기쁨이라기보다는 답답함의 연속이었다. 매주일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며 이번 주에는 아이들과 연락을 하고 심방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지 돌아오는 주일마다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맘 속에는 온갖 세상의 인생각들로 인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소년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내 맘 속에 변화가 일어났다. 매주일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교사의 자리는 또한 은혜를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임에 틀림없다.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매주 갖는 교사모임 시간의 말씀을 통해 오히려 내가 변화되고 있었음을 느낀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전보다 더욱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기도제목이었던 아이들의 작은 변화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 가장 크게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나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기쁨으로 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또한 나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커지는 것을 본다. 매 주일 아침 힘들고 지쳐도 일단 가서 아이들과 말씀공부를 하면 그 피곤이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사랑을 받기만 할 것 같은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심지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는 것을 경험할 때의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나의 맘 속엔 교사를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부끄러움이 있다. 항상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나의 게으름과 죄악들, 어떻게 이런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나 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겨 주셨다. 감사의 조건이 어찌가 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달란트 비유와 한 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종처럼 뒤쳐지기 위해서 더욱더 헌신된 자로 섬길 수 있길 기도합니다.

윤석원(소년부 교사)

주님의 도구

지난 7월, 선교를 갔을 때였다. 우리 팀이 간 동네는 다른 곳보다 반응이 좋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반응 때문에 당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찬양을 하기로 하고 찬양을 시작했다. 찬양 사역을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많이 내리자 사람들은 하나 둘씩 흩어져가기 시작했다. 우리도 비를 피하기 위해 공사장 같은 곳으로 가게 되었다. 비가 그칠길 기다렸지만 비는 금세 그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그곳에서 다시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곳으로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기서 어린이 사역을 하기로 결정하고 사역을 시작했다.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우리에게도 다가와 좋은 반응을 보였다. 그곳의 열매는 간지 신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러 온 것임을 알고도 다가와 반응을 보이지도 호응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걸 알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지켜주시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간구합니다.

이다영(중년2부)

교회탐방 36 외선부 몽골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몽골팀이 독립 5주년을 맞았다. 몽골팀은 외선부가 생긴 이래 최초로 독립집회를 갖기 시작한 팀이다. 원래 외선부는 성경공부만 나라별로 따로 하고 집회는 함께 드렸는데 몽골팀은 자체적으로 집회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제자 양육이 잘 되었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 두 명으로 성경공부모임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예배 출석원만 30여 명에 육박한다. 독립 집회를 갖게 된 지 5년, 이제 한국인 교사나 전도사 없이 몽골인 성도들끼리 모여도 말씀을 나누며 신앙을 고백하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한다. 좀더 체계적으로 성경공부를 해서 고국의 영혼들을 구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몽골 팀 내에서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심방에서부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데까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몽골팀이 처음부터 이렇게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이들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 혹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외선부에 오기 시작했다. 몽골에서 처음 한국에 도착하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데 중언교회 외선부에 몽골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몽골인들은 술과 담배를 무척이나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술과 담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초반 몇 년 동안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대체로 라마교였는데, 천국과 지옥을 설명해줘도 모두 라마교의 교리에 맞춰서 이해하고 했다. 혹은 공산권의 교육으로 종교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다가 몽골팀 초기 회원이었던 순다와 발다

부부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몽골팀은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예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고 전도사와 교사들이 몽골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전도를 나갈 때 따라나서기도 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몽골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어엿한 천국일꾼으로

순다와 발다 부부는 현재 몽골로 돌아가서 연지의 선교사들을 도와 복음을 전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 외에도 외선부를 거쳐 간 많은 몽골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확장하

는데 일조를 한다. 그리고 지금도 고국에서 복음 전할 것을 꿈꾸며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친구를 전도했는데 한 달 정도 나오다가 주일에도 일을 하는 직장을 구했으며 교회를 안 나와요. 그 뒤로는 연락도 잘 안 되고,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긴 저도 예수님을 믿는데 몇 년이 걸렸으니까요." 한 몽골인 성도의 고백이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빌 3:13)

몽골팀이 외형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아무도 안주하지 않는다. 아직 한국 땅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몽골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국에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몽골팀의 기도와 예배, 전도는 쉬지 않을 것이다.

이번 추석에도 외선부는 자체 수련회를 가졌다.

"외로 선교의 날이나 수련회 같은 때에는 몇 명인지 셀 수도 없이 많이 와요. 어디에들 숨어 있다가 오는 건지. 그런데 주일 예배가 되면 또 원상 복구되니까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래도 꼭 행사 후에 한 두 영혼씩 찾아오니까 안 영연이 귀해서 하는 거죠."

몽골팀에서는 이번 수련회에서도 그 한 영연이 복음을 찾아오기를 기도하며 준비했고 앞으로도 그 기도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중언의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야 할 것이다.

(편집실)



다음 주일 찬송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음 주일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있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사되었다. 작곡자 윌리엄 하워드 돈 박사는 교회 음악인으로서 2200편의 찬송곡을 작곡했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15편이 실려 있다. 작시자는 왜나 제인 크로스비는 평범한 시민이고 가수였다. 그녀는 뚜렷한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놓친 적이 없었고 그녀의 말에는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

'주여 넓으신 은혜로 나를 받아주소서, 거룩한 그리스도여 주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귀하신 보혈 흘리신 열거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찬양위원회)

새·가·족·을·환·영·함·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624	김권중	4	장년3부	김현옥(10)	2633	이세일	8	장년2부	고금자(12)
2625	추영순	4	장년2부	김현옥(10)	2634	이연우	19	장년1부	임전희(16)
2626	장세성	12	장년1부	임윤관(12)	2635	임은샘	19	중등2부	양재웅(1)
2627	이은숙	1	장년1부		2636	임은솔	19	중등2부	양재웅(1)
2628	김은주	17	청년2부	문경숙(11)	2637	윤희상	19	대학부	
2629	김순복	9	장년2부	이재일(9)	2638	정성영	1	청년2부	
2630	전명국	10	예배다부	정순옥(1)	2639	이승연	19	청년2부	권향일(19)
2631	전영국	10	고등부	정순옥(1)	2640	정현지	19	청년1부	전종일(5)
2632	조광호	4	장년1부	임윤관(12)					

* 송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